

Next Energy

미국 전력망 병목 지속 중



주간 주요 기업 추가 변동

- **배터리:** 삼성SDI(+11.3%), 포스코퓨처엠(+8.0%), LG화학(+6.8%), LG에너지솔루션(+5.2%)
- **원자력:** Nuscale(+22.7%), Centrus(+20.6%), 두산에너빌리티(+10.5%), Cameco(+7.6%)

제도 병목이 풀려도 설비 병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FERC는 PJM, CAISO, NYISO 등 주요 전력망 운영기관에 대형 전력수요자의 접속 규칙이 충분한지 60 일 안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새 규칙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발전소 co-location, BTM, 여러 대형 수요자를 한꺼번에 묶어 심사하는 일괄 심사 방식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텍사스 ERCOT 은 75MW 이상 대형 수요자를 묶어 심사하는 Batch Zero 제도를 도입했다. FERC의 이번 조치는 전력망 심사와 인허가 절차가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접속 절차를 단축하고, 송전망 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더 투명하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제도 개선이 곧바로 전력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가동 중인 데이터센터는 약 4,000 개로 추정되며, 추가로 계획되거나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도 약 3,000 개에 달한다.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지역별로 4~5%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9~1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포화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는 이미 전기요금과 용량시장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PJM 용량시장 가격은 2년 전보다 1,000% 이상 상승했고, 향후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FERC의 이번 조치는 대형 부하의 전력망 접속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병목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아니다. 규칙이 바뀌어 접속 심사가 빨라지면, 그다음 병목은 변압기, 개폐기, 송전선, 변전소, 전력 EPC, 가스터빈, 원전, BESS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접속 규칙이 완화될수록 대형 전력수요자는 더 빠르게 전력망에 들어오려 할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와 발전원 확보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초고압 변압기, 개폐기, 전력 EPC, BESS, 가스터빈, 원전, SMR, 재생에너지까지 전력 인프라 전반으로 모멘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력기기와 에너지 인프라 밸류체인 역시 이 흐름의 수혜권에 들어갈 수 있다.

주간 주요 뉴스

부산기장군, 국내 첫 i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
경북 영덕군은 1.4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선정. 0.7GW 규모의 iSMR 1기는 2035년 준공 목표

두산에너빌리티, 오만 가스복합발전소 수주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 약 5,300억원 규모의 오만 두름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계약, 2029년 준공 목표

한전기술-체코 EGP 계약 체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한전기술과 체코 에너지 프로젝트 기업 EGP 간 설계-인허가 기술지원 계약 체결

美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 나스닥 상장

팩토리얼의 전고체 배터리용 양음극재 개발 협력 파트너 및 주요 지분 투자사인 포스코퓨처엠 수혜 전망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 조원, 십억달러)	RECENT	증감(%)
KOSPI	9,052	▲16.6
KRX 2차전지	3,956	▲5.4
KRX 유틸리티	866	▲0.8
LG에너지솔루션	95	▲5.2
삼성 SDI	45	▲11.3
SK 이노베이션	17	▼0.8
LG화학	24	▲6.8
포스코퓨처엠	18	▲8.0
두산에너빌리티	63	▲10.5
Tesla	1,504	▲0.3
CATL	275	▲2.9
BYD	109	▼2.8
Fluence	5	▲7.0
Nuscale	4	▲22.7
Centrus	4	▲20.6
Cameco	46	▲7.6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4	26.03	25.04	MoM(%)	YoY(%)	4Q25	1Q26	QoQ(%)
	글로벌	1,311	1,386	1,116	(5.4)	17.5	4,512	3,340	(26.0)
지역별	중국	806	744	732	8.3	10.1	3,047	1,961	(35.6)
	아시아	108	143	62	(24.9)	72.5	287	331	15.2
	서유럽	168	239	114	(29.9)	47.3	476	420	(11.8)
	북미	89	100	112	(11.3)	(21.0)	332	252	(24.2)
브랜드별	폭스바겐	74	87	77	(14.6)	(3.1)	250	191	(23.6)
	GM	15	16	17	(4.3)	(11.5)	31	33	3.8
	테슬라	148	209	117	(29.1)	26.9	492	459	(6.8)
	BMW	36	43	33	(16.5)	7.3	107	93	(12.8)
	현대기아	56	63	41	(10.5)	36.6	103	142	37.4
	BYD	202	192	220	5.3	(8.2)	772	427	(44.7)
서유럽	폭스바겐	41	54	35	(25.0)	17.5	120	118	(1.6)
	GM	0	0	0	(90.0)	(50.0)	0	0	36.4
	테슬라	7	33	3	(80.1)	99.3	28	47	68.3
	BMW	15	19	11	(21.3)	40.7	49	39	(20.4)
	현대기아	14	17	9	(15.5)	56.6	28	36	28.8
	BYD	9	12	5	(25.7)	77.3	27	23	(15.0)
북미	폭스바겐	3	2	4	86.8	(32.7)	4	4	(4.0)
	GM	11	12	15	(7.1)	(29.4)	25	26	2.5
	테슬라	34	43	46	(20.3)	(26.9)	138	117	(15.0)
	BMW	3	2	4	36.1	(38.6)	12	5	(57.0)
	현대기아	7	8	7	(10.6)	7.7	14	18	32.2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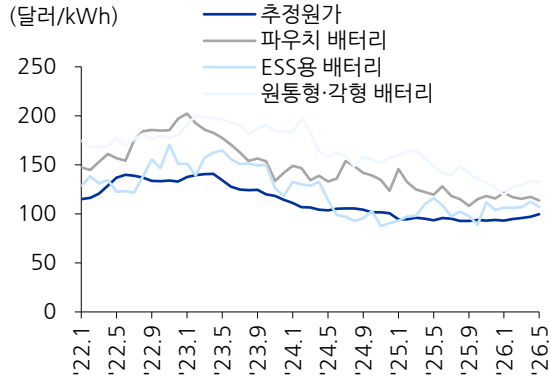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4			26.03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2,728	6,816	160	43,254	7,001	162	(1.2)	(2.6)	(1.5)
주택용	6,479	994	153	6,403	973	152	1.2	2.2	1.0
일반용	10,182	1,626	160	10,593	1,772	167	(3.9)	(8.2)	(4.5)
교육용	752	100	133	828	116	140	(9.1)	(13.8)	(5.1)
산업용	22,803	3,844	169	22,543	3,845	171	1.2	(0.0)	(1.2)
농사용	1,580	144	91	1,731	157	91	(8.7)	(8.1)	0.5
가로등	282	46	164	286	45	158	(1.3)	2.6	3.6
심야전력	650	62	96	872	92	106	(25.5)	(32.5)	(9.9)
	26.04			26.03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p)
합계	158,711	44,378	38.8	158,286	47,974	40.7	0.3	(7.5)	(1.9)
Nuclear	26,050	13,609	72.6	26,050	13,249	68.4	-	2.7	4.2
Coal	40,767	11,405	38.9	40,367	12,752	42.0	1.0	(10.6)	(3.1)
LNG	45,705	12,634	38.4	45,705	11,601	34.1	-	8.9	4.3
Oil	628	4	0.9	628	5	1.1	-	(20.0)	(0.2)
Water	6,516	518	11.0	6,516	501	10.3	-	3.4	0.7
Renewable	38,515	6,046	21.8	38,089	5,874	20.7	1.1	2.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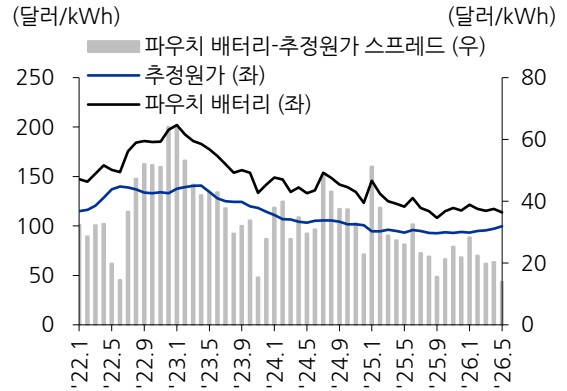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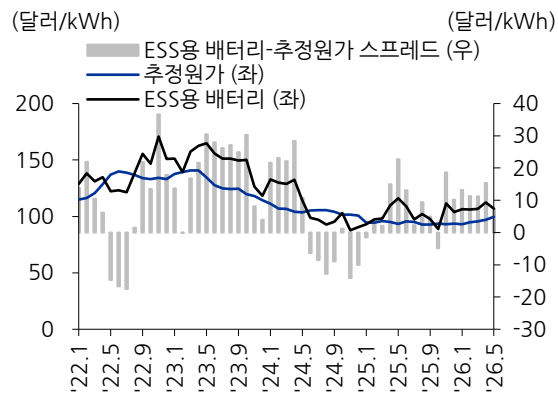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우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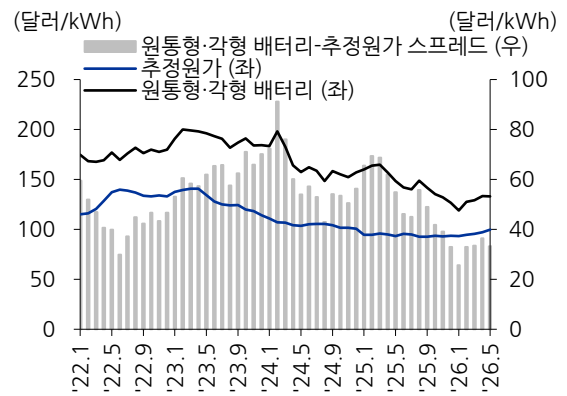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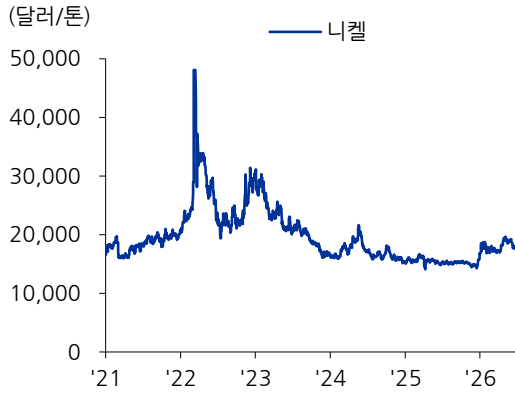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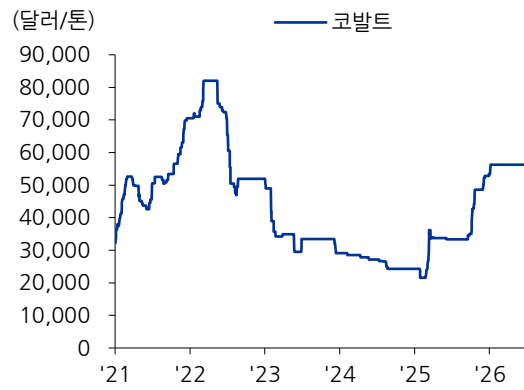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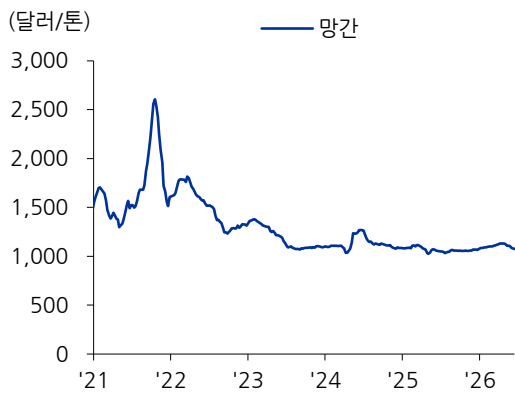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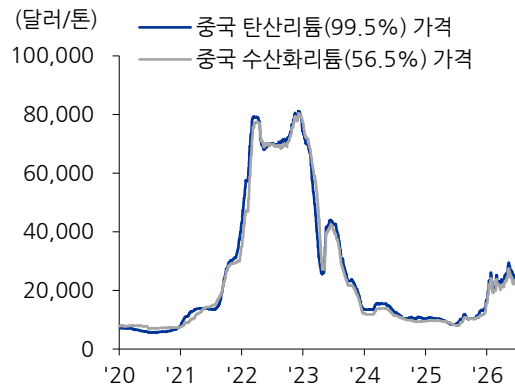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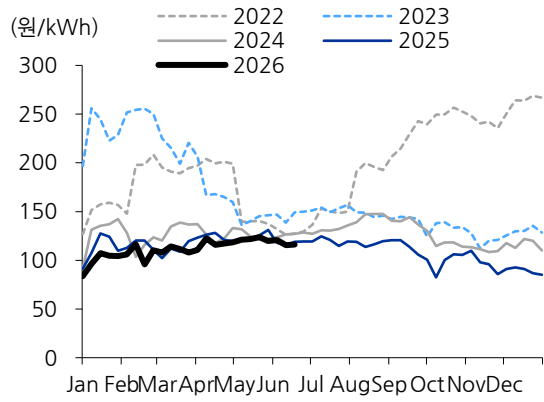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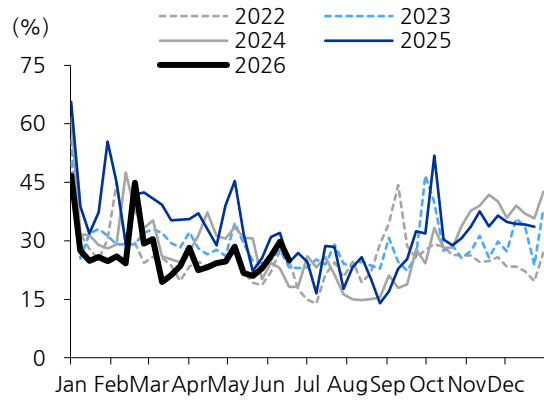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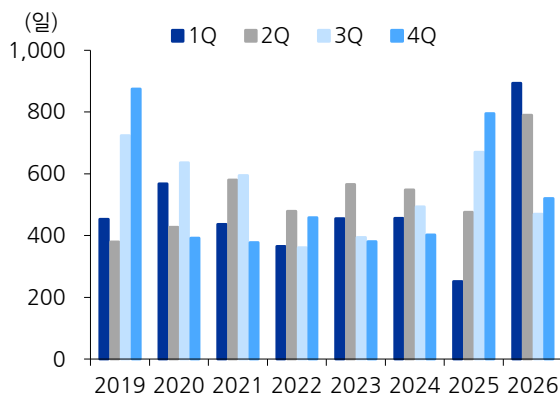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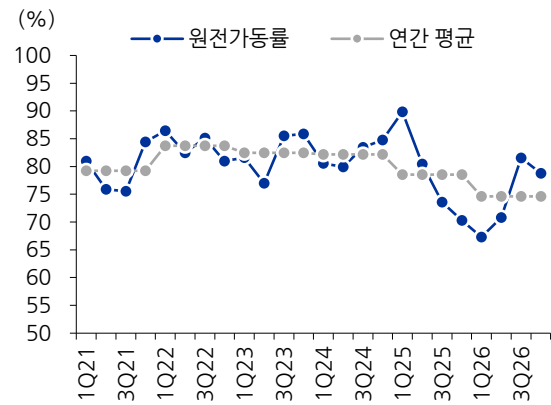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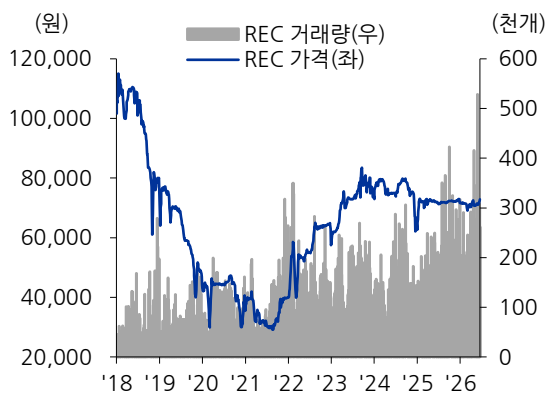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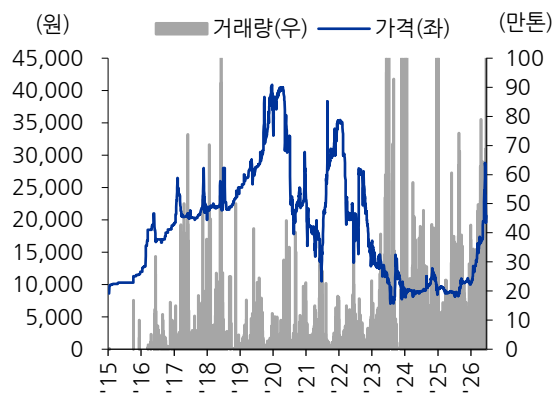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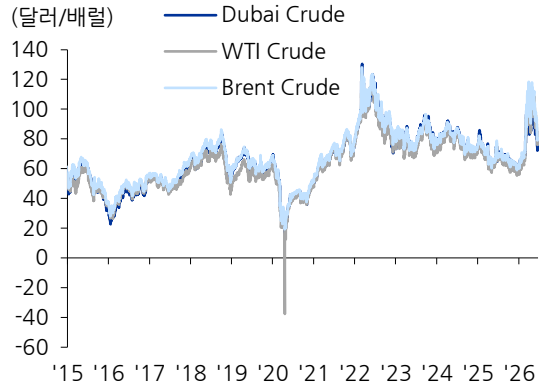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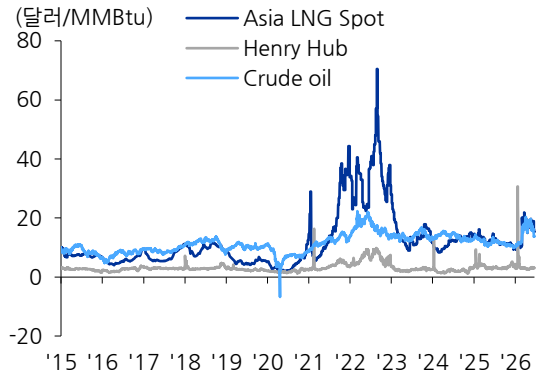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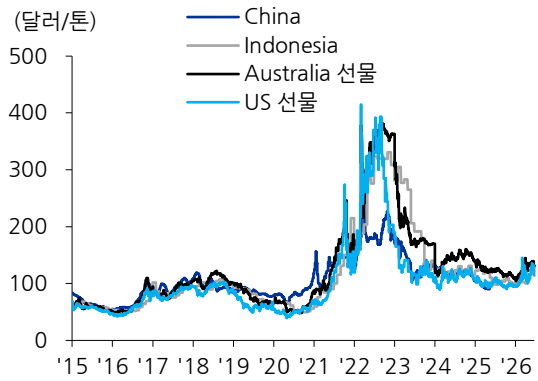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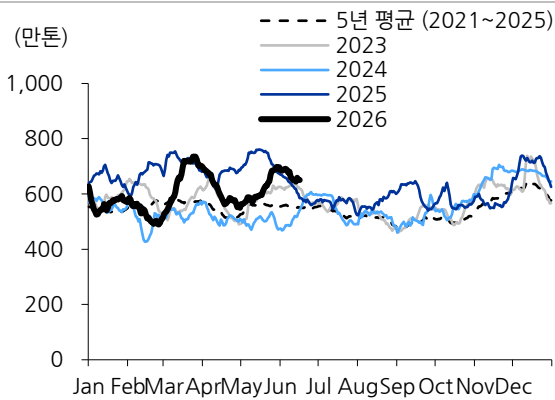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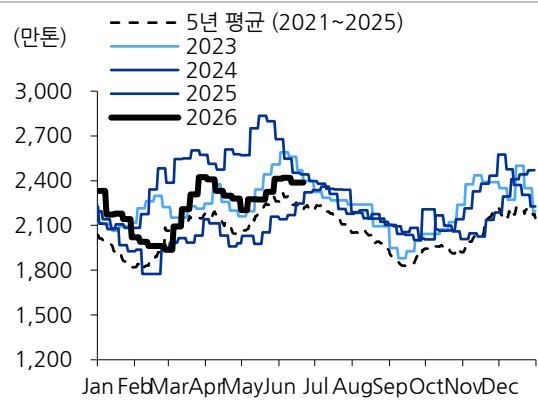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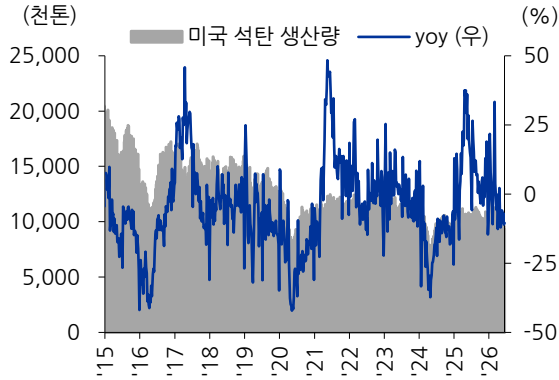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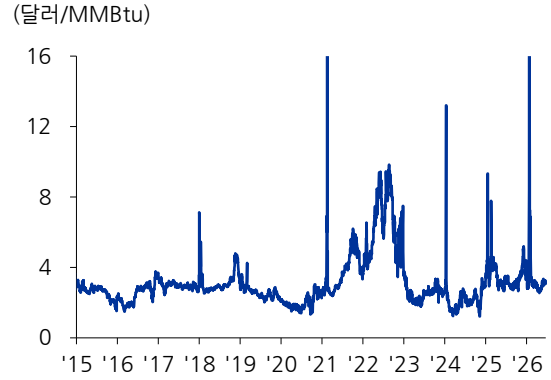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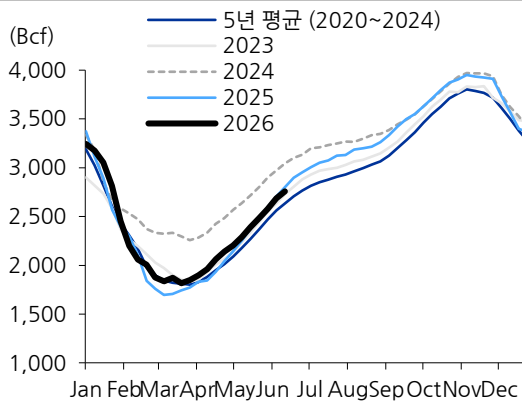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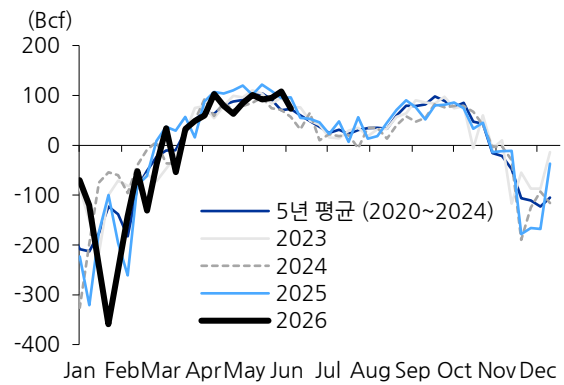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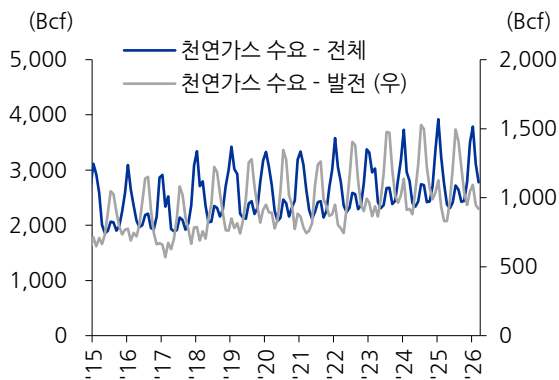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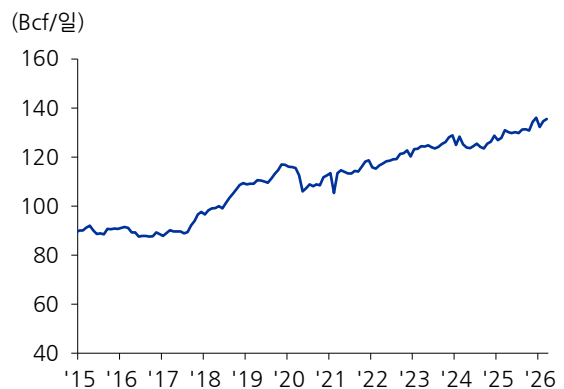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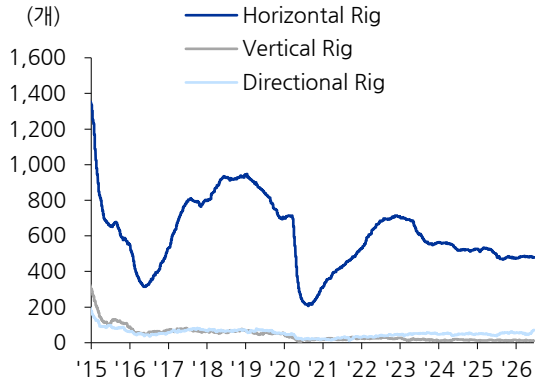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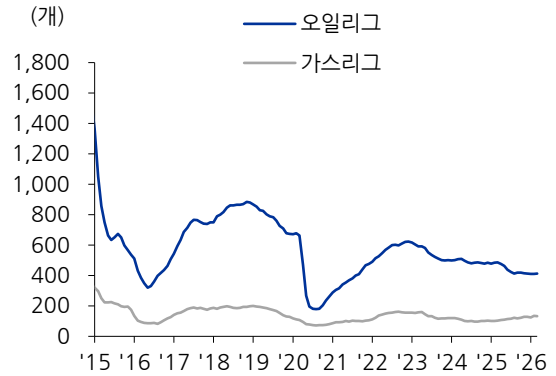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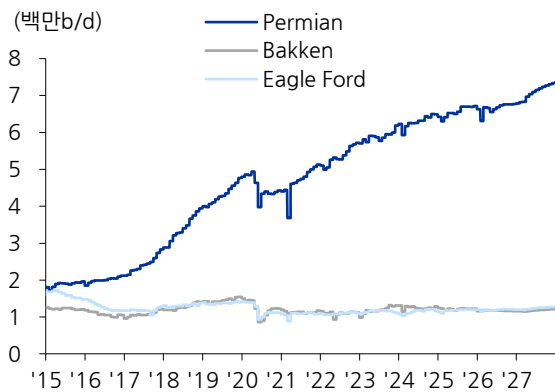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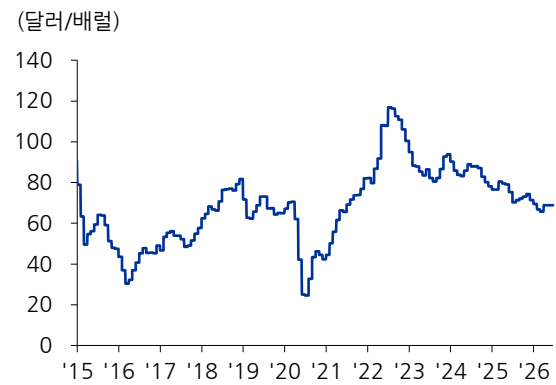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 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